

■청와대 첫 여야지도부 초청 오찬 무슨 얘기 나눴나

“BBK 털고 가자” “FTA 처리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24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은 화기에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빠 있는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쳤다.



이명박(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섭단체 지도부 초청 오찬회동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왼쪽에서 두번째), 박상천(맨 왼쪽) 공동대표, 한나라당 강재섭(맨 오른쪽)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찬에는 이 외에도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민주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및 한미FTA 비준=이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FTA를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김효석 원내대표는 “FTA 처리합니다”라면서도 “시기가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신경전은 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논란으로 본격화됐다.

손 대표는 “이번(쇠고기) 협상은 미국 측을 빛을 내주는 협상이었다”며 “우리 농업과 축산에 상처를 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비준 통과에 있어선 피해 산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도 “한미FTA는 피해 산업에 대한 선 대책 강구, 후 비준이다”며 “조건부 찬성이다”고 거듭했다.

이에 강 대표는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비준을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대책을 민주당이 요구하는데 생산적,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맞박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세워 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일정을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진행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고소·고발=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상천 대표였다. 박 대표는 “BBK 등 대선

관련 고소·고발 건을 털고 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강재섭 대표가 농담조로 “그것도 특검 하자”고 비켜가자 박 대표는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안 하는 게 미국에서도 관행”이라며 거듭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그동안 이 대통령은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국민에게 말씀했던 대로 큰 틀의 정치를 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거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에서 고발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상수, 김효석 원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바란다”며 양당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계획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미 동맹 및 남북관계=우선 손 대표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 MD(미사일 방어체계)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같은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면 문제

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과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지난 정부 업적 이외에 적극적인 발전이 있는지 회의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전혀 북한을 적대시하려는 생각이 없다”며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미관계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대표 “한미 정상회담 우리 농민에 상처 줬다”

李 대통령 “한미동맹 北 압력 가하는 일 없을 것”

추경편성 당·정 ‘베그덕’

정부 ‘요건 완화 법률 검토’ 방안에 당 “수용 어렵다” 고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거액의 세계인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나라당에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추경 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편성을 받아들이면 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감세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창조한국당 당직자 사무실 압수수색

학력·경력 위조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4일 창조한국당 핵심관계자 2명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는 6억원에 대해 창조한국당 측이 “이 당선자의 지인 2명이 당에(黨庫)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당체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인체를 양적으로 발행된 개인 간 차용증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돈의 출처와 성격,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당체 발행경위와 그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체 발행액(9억9천만원) 가운데 8억원이 팔렸고 그 중 대부분이 이 당선자 쪽이 매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누가 당체 발행을 주도했는지, 이 당선자가 당체 발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친박연대 서청원대표 소환키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4일 서청원 대표의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광고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기획사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친박연대의 홍보를 맡았던 회사로,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의 각종 자료를 통해 친박연대와 양정래 비례대표 당선자, 서청원 대표 간에 오고간 자금 이 있는지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만간 서청원 대표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검찰에 출두하고 싶다”며 “양정래,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자진 출두해 의혹에 대해 소명할 준비가 다 돼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5월 1일 개강.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행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합격을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센터 080-0236-2468.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제=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세직, 검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목직, 건축직, 토목직. 5월 9급 지방직대비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4월 21일 = 5주완성·월정·고령직대비. 5월 1일(주·연·포) (본래·연·포수강).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고 우편) 222-4560. www.mdgosl.co.kr.

주택관리사. 2010년 의무채용 실시확정.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옆) 062)222-6790, 232-108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5월 1일 주야 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울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5월 1일 주야 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울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5월 1일 주야 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울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생활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